

10연패 끝은 키움…기초 없는 공사에 ‘리빌딩’ 성쌓을 수 있나

구단 최다 10연패·리그 월간 최다패 기록하며 추락 주축 선수 이탈에도 전력 보강·선수 육성 성과 미미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악몽 같았던 5월이 끝났다. 3년 연속 최하위를 달리는 키움이 리빌딩의 성적표를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키움은 3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콜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지난달 17일 울산 NC 다이노스전 이후 2주 만에야 승리의 촉포를 터트렸다. 두 경기 모두 1점 차 진땀승이었던 것마저 놀 시즌의 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월 키움이 받아들인 성적표는 4승 1무 22패. 구단 창단 최다 10연패 신기록을 작성한 것은 물론, KBO리그 역대 월간 최다 패라는 불명예에 기록까지 세웠다.

올 시즌 키움의 최하위는 예상된 일이었다. 리빌딩 3년 차를 맞아 전력은 지난 2년보다 눈에 띄게 약해졌다.

구단의 가을야구를 이끌었던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LA 다저스) 등이 메이저리그(MLB)로 향했고, 토종 에이스 안우진도 공의 근무 중이다.

토종 선발 에이스도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선수 두 명을 타자로 기용하는 것은 좋게

보면 과감한 선택이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땐 무모하기만 할 뿐이었다.

예상했던 부진이지만 뚜껑을 여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키움은 리그 9위 두산 베어스(23승 3무 31패)와의 게임차가 10.5경기로 벌어졌다.

선두 LG 트윈스(35승 1무 21패)와 9위 두산의 격차가 11경기인 것을 감안하면 키움은 리그 내 암도적인 ‘1위’으로, 팬들 순위 상승보다 3할 승률이라도 회복하길 바라는 실정이다.

당장 부진한 성적을 넘어 팀 경기력에 발전이 보이지 않으니 리빌딩을 향한 의심도 거세다.

타격과 마운드, 수비까지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실망스러운 플레이가 이어지니 과연 키움이 선수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는지 물음표가 떠오른다.

모기잡이 없이 운영되는 구단인 만큼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키움에 있어 에이스 안우진이 돌아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도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키움의 행보는 리빌딩보다 방

치에 기깝다는 것이 문제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확실한 선발과 안정적인 필승조, 폭발력 있는 4번 타자가 모두 부재한 가운데 전력 보강은 미미하다.

당장 경기를 뛸 선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김휘집을 신인 지명권 두 장에 넘기더니, 시즌 후엔 팀의 핵심 마무리였던 조상우를 현금·지명권과 트레이드했다.

그렇게 아낀 비용을 가능성 있는 신인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느냐 묻는다면 그 답도 명확하지 않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음에도 키움의 코치진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확실한 성장세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키움의 신인급 선수 중 팀의 확실한 주전으로 발돋움한 선수는 불펜 주승우 정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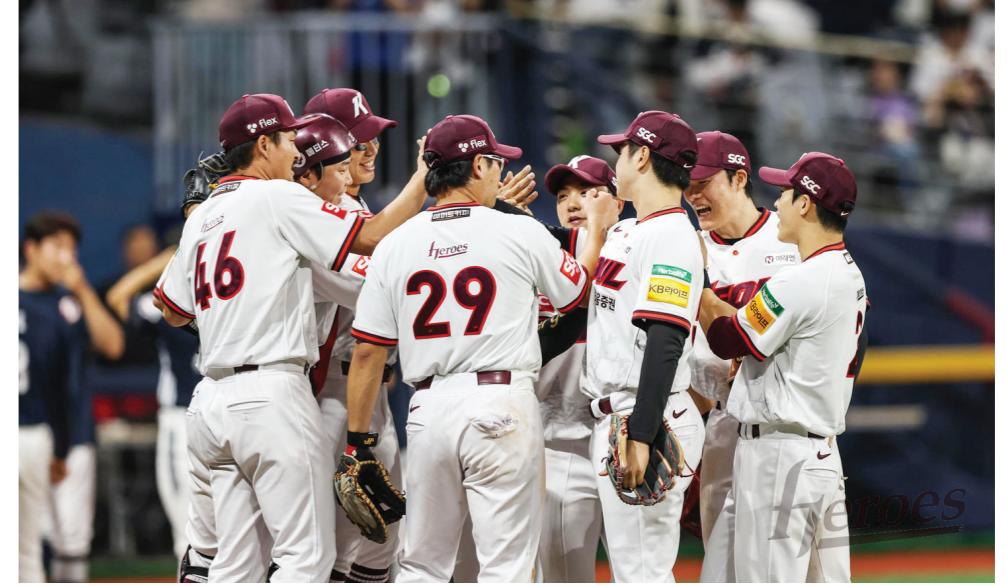
부족한 전력을 뒤집을 전략도 없다. 장타력도, 적극적인 주루플레이도, 섬세한 야구도 키움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 이른바 셀러리캡 규모를 보면 키움은 9개 구단 평균값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LG와 비교하면 약 82억원 가까이 적다.

연봉 규모가 실제 순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셀러리캡에서도 훌륭한 암도적인 최하위에 자리한 모습은 지금의 순위와 유사하다.

키움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구단 운영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이 5월 3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콜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흑자를 달성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무려 191억7800만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도 77억2876만원의 이익을 냈다.

당장 긴축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절감을 시도하며, 그 부담을 모두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 게만 전가했다.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하는 어린 선수들은 급히 실전에 투입돼 좌절을 겪어야 했다. 프로 2년 차에 불과한 김윤하는 잠재력을 다질

여유도 없이 폐전만 쌓으며 경험치라 포장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힘겹게 10연패를 끊은 주장 송성문도 경기 후 눈물을 훔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케 했다.

구단에는 한 시즌의 리빌딩이지만 선수단과 팬들은 6개월 동안 매일을 현실과 부딪혀야 한다.

리빌딩이 구단의 장기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선 키움은 당장 올 시즌부터 베테랑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초 토대가 무너지면 성을 쌓을 수 없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1일(한국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25 MLB 경기 2회말 투런 홈런을 치고 있다.

김혜성, 빅리그 데뷔 후 ‘최고의 날’ 홈런 포함 4안타 맹활약…기능성 증명

김혜성이 좌완 투수를 상대로 빅리그 2호 흠런을 쏘아 올리는 등 공수 맹활약으로 ‘인생 경기’를 펼쳤다.

김혜성은 1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3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김혜성은 최근 타격감이 다소 주춤히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날 그의 안타도 지난달 24일 뉴욕 메츠전 이후 일주일 만이었다.

오랜만에 타격 기회를 잡은 그는 안타 4개를 폭발, 5홀루 경기를 펼치며 타율도 크게 끌어 올렸다. 김혜성은 타율 0.422(45타수 19안타), OPS(출루율+장타율) 1.058을 달성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5일 애슬레틱스전 이후 MLB 두 번째 흠런을 신고했다. 특히 좌완 투수를 상대로 흠런을 기록했기에 더 의미가 깊었다.

좌타인 김혜성은 빅리그 콜업 이후 좌완 선발이 상대로 등판하는 날마다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이날은 김혜성이 MLB 진출 이후 처음으로 좌완 투수를 상대한 경기였다.

팀이 4-0으로 앞선 1회말 2사 2, 3루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섰던 김혜성은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 출루했다.

2회말 맥스 먼시의 3점 홈런으로 다저스는 7-0 리드를 잡았고, 양키스는 좌완 브렌트 헤드리으로 마운드를 교체했다.

토미 에드먼이 바뀐 투수를 상대로 장타를 뽑아내며 팀이 8-0까지 앞선 2회말 2사 2루에 김혜성은 이날 경기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좌완 투수 상대 빅리그 첫 타석이다.

김혜성은 헤드리과의 승부를 8구까지 끌고 가며 침착하게 기회를 노렸고, 시속 148km 높은 직구를 당겨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대형 아치를 그렸다.

김혜성의 홈런으로 다저스는 경기 초반부터 10-0이라는 큰 점수 차를 만들었다.

5회말 선두타자로 다시 나선 김혜성은 바뀐 투수 마크 라이터 주니어의 싱커를 견어 올려 좌중간 안타를 그리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그는 후속 오타니 쇼헤이의 단타에 3루까지 질주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프레디 프리먼의 2루타에 흠을 밟았다.

점수 차가 14-1까지 크게 벌어진 6회말 무사 1루에 김혜성은 좌익수 앞으로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를 작성, 이날 경기 3번째 안타, 4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15-1로 이미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8회말 무사 1루에 이날 경기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좌전 2루타를 작렬, 장타까지 추가했다.

김혜성은 후속 달튼 러싱의 흠런에 흠을 밟으며 득점까지 더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최상의 기량을 자랑했던 김혜성의 활약에 힘입어 다저스는 이날 경기 18-2 압승을 거뒀다.

‘韓 최초 트레블’이지만…이강인, PSG와 동행 이어갈까

PSG, 1일 인터밀란 꺾고 UCL 우승 이강인 한국 선수 최초 3관왕이지만 또 벤치…이적 확률 더 커질 가능성↑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커리어를 추가했지만, 결승전을 밟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PSG는 1일 오전 4시(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인터밀란(이탈리아)과의 2024-2025시즌 UCL 결승전에서 5-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PSG는 구단 역사상 첫 UCL 우승을 거뒀다.

자국 무대 3관왕(리그·컵 대회·슈퍼컵)에 이어 이번 시즌 4관왕을 달성했다.

아울러 PSG는 프랑스 구단 최초로 트리플크라운(리그·컵 대회·UCL)을 이룬 팀이 됐다.

PSG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이번 우승으로 2007-2008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UCL 우승을 경험한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트리플크라운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다.

당시 박지성은 리그까지 2관왕은 했지만, FA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대기록을 세웠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었다. 최근 불안한 입지에 이어 이날 경기를 끝내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지난 8강과 4강에 이어 결승전에서도 이강인을 벤치에 앉혔다.

대신 전방에 우스만 템펠레, 흐비자 크바라체힐리아, 데지레 두에를, 중원엔 과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를 출격시켰다.

2007-2008시즌 명단이 제외됐던 박지성과

달리,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시키지 않았다.

PSG는 전반 12분에 터진 아슈라프 하미드, 전반 20분에 나온 두에의 이른 득점으로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후 후반 18분 두에, 후반 28분 흐비자, 후반 41분 세니 마루루의 추가골로 5-0까지 차이를 벌었으나, 이강인은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강인은 시즌 초반까지는 엔리케 감독에게 쏠쏠히 활용됐다.

축면 왕어와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 폴스나인(가자 9번) 임무까지 수행했다.

엔리케 감독도 여전 포지션을 뛰는 이강인의 멀티 능력을 여러 번 칭찬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을 자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강인은 빅 매치마다 벤치에 머무르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겨울 캐브라초헬리아가 합류한 뒤 주전 경쟁이 한층 혼란해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인 UCL에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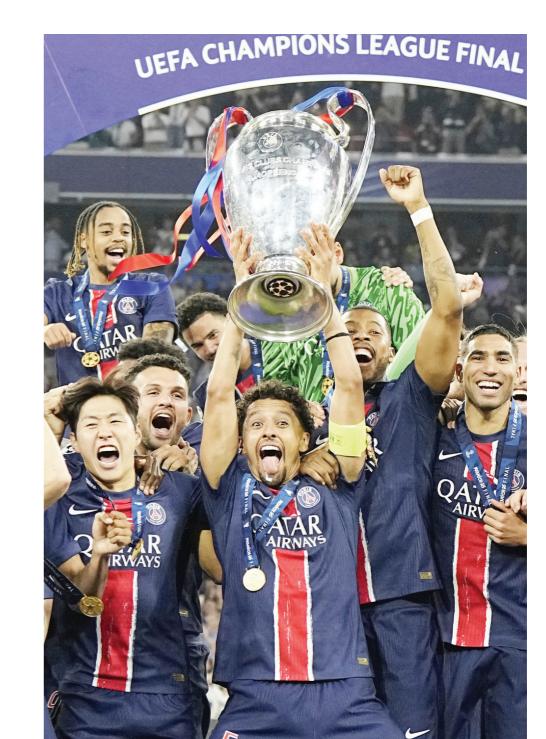
올 시즌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앙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했으나, UCL에서는 리그 페이즈부터 16강까지 11경기 동안 침묵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프로페셔널리그 이적설이 터졌다.

설상가상 이강인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PSG 소속임을 밝히는 문구를 지우면서 불화설까지 피어올랐다.

지난 2023년 마요르카(스페인)를 떠나 PSG로 향할 때와 같은 이적설에 무게가 실렸다.

시즌 말미 이강인은 우승을 조기 확정한 프랑스 리그앙에서만 주로 기회를 받았고, 결국 꿈에 그리던 UCL 결승도 밟지 못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과 선수단.

현재로서는 2023년 입단 이후 2년 만에 PSG와 각별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잔류 또는 이적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한편 이강인은 시즌 종료 후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흥행보호에 합류한다.

흥행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6월 오전 3시15분 이라크 바스라의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의 10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은 PSG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축구 대표팀에서 출전과 득점 사냥에 나선다.

파리올림픽